

설날 가정예배 모범

찬 송	-----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다 같이
기 도	-----		-----	가족 중
말 씬	-----	창세기 24장 42절 ~ 48절 (구약 33쪽)	-----	
설 교	-----	바른길로 인도받는 삶	-----	가족 중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의 아쉬웠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어떻게 하나님의 바르게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12절)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48절의 말씀과 같이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난 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48절).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도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42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올 한해 내다 볼 때 기대하며 소망을 갖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 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심을 가득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나눔	-----	올 한해 하나님의 바르게 인도하심이 나타날길 소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다 같이
기도	-----		-----	다 같이
찬 송	-----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다 같이
주기도문	-----		-----	다 같이